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계속되는 노동법 개악!

문재인 정권이 노동존중을 포기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본 친화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노동법도 계속해서 개악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 하는 방안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3월 국회에서 다룬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는 재계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노조법 개악안을 제출하고 있다. 2~3월 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악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저지!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이미 작년에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올해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반감됐고, 사용자들은 각종 꼼수를 부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면서 다시 또 사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려 한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상한선과 하한선을 먼저 결정하고, 노사정이 추천한 위원들이 그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 하한선을 결정할 때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더 문제다. 노동시간을 자본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현재는 3개월 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6개월~1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고, 그 평균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도 주지 않아도 된다.

노동법 개악 저지하자!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이 논의되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어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확고한 경고를 보내고 총파업을 결의한다.

콜텍 집중 항의행동

콜텍지회가 사태해결을 위해 본사 농성에 돌입한지 41일이 됐다. 그 사이 콜텍 자본과 몇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평행선이다. 2월 14일 진행된 교섭에서도 지회는 양보안을 제출했지만 사측은 전향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복직 요구에 대해서도 지회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지난 교섭에서 자신들이 제시했던 ‘복직 후 당일 퇴직’에 대해서도 말을 뒤집었다. 지회는 “최소한의 신뢰도 없다. 전향적 내용이 마련되면 교섭 요청하라.”며 결렬을 선언했다.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콜텍 박영호 회장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집중 항의행동이 전국에서 벌어진다. 전국 66개 콜트 영업점앞 1인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부도 대전과 충북지역 악기 영업소 8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콜텍자본이 성실히 교섭에 나오도록 함께 투쟁하자.

* 주요 일정 *

- ☐ 민주노총 총력투쟁 기자회견
2/18(월) 11시 /
대전 민주당사 앞, 충북도청 앞
- ☐ 지부 노동의제발굴위 회의
2/20(수) 14시, 지부 사무실
- ☐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2/20(수) 13시30분, 광화문
- ☐ 민주노총 결의대회
2/20(수) 15시, 광화문